FTA BRIEF

Vol. 08
October 2024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국 인도와 베트남
또 다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세요!



한국원산지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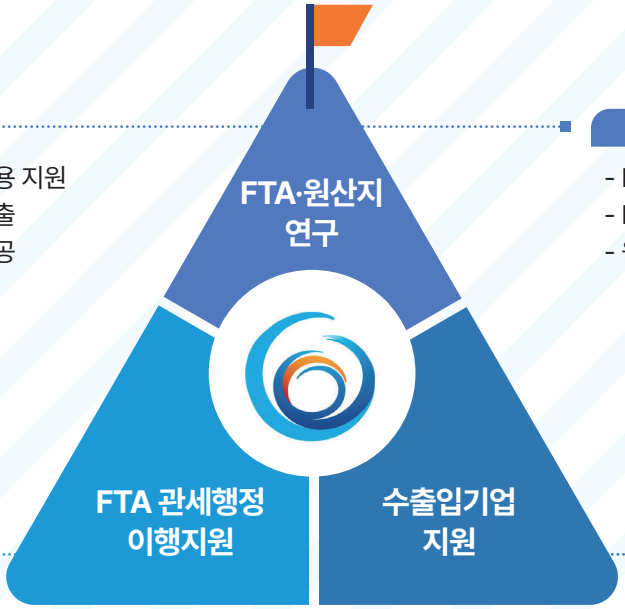
비전 : 원산지 정보로부터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FTA·원산지전문기관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 FTA 활용률 통계 산출
-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정책연구
- FTA 정책 지원정보
- FTA 협상 지원
-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원산지검증 지원
-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발행인 김일권
발행처 한국원산지정보원
발행일 2024년 11월 05일
주 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전화 031-600-0769
홈페이지 www.origin.or.kr
ISSN 3022-7984

Copyright ©2024 by Korea Insitute of Origin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원산지정보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FTA 원산지 동향 ISSUE



* 사진 출처 : 관세청

관세청, FTA 신청 오류 사례집 발간

☑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 유형과 해당 오류에 대한 작성 요령을 안내해주는 'FTA 신청 오류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 사례 유형으로는 원산지소명서·원산지(포괄)확인서·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포함한 10종*의 서류를 예로 소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관세청-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자재명세서·원가산출내역서·제조공정도·인증신청관련 서류(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등)·C/O발급 신청 관련 상업서류 등이 있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개정

* 사진 출처 : 구글



☑ 인도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수입자들의 원활한 FTA 양허 관세 혜택 적용을 위해 인도 관세법(the Customs Act, 1962)의 28DA 부분을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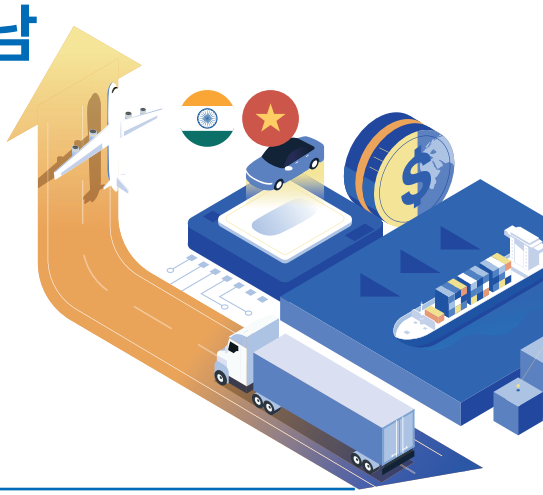
☑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1) 원산지발급절차 간소화 가능성 (2) 원산지증명서의 영문 명칭 변경(Proof of Origin)과 (3) 원산지 증명 발급 권한을 '기관 한정'에서 '무역 협정에 따라 지정된 개인'으로 확장하였다.

☑ 이번 개정은 기존 한-인도 CEPA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향후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출해있는 기업들은 해당 간소화 법개정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동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여 원활하게 한-인도 CEPA 관세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국 인도와 베트남

– 또 다른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세요!



-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對중 무역수지 적자 현상의 개선책의 일환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
- FTA 체약상대국 중에서 주요 신흥시장에 해당하는 인도 및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상위 품목의 수출 경쟁력 지수 분석과 FTA 활용 현황을 점검 함
- 수출경쟁력 우위에 있으나 FTA 활용이 미진한 품목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함

[글_**황수한**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는 지난 수십 년간 특정 국가,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형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7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었으나, 2023년 12월 미국이 이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며 수출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수출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중 교역이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시장 다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을 대체하는 수출 시장으로 멕시코, 베트남, 인도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기지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면서 신흥국 시장이 수출 다변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산업화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국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수출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로 주목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 등 6개 신흥 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당 신흥국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16% 내외에 불과한 상황이다.[1)]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가 중 주요 신흥시장으로 알려진 인도와 베트남을 중심으로 상대국의 교역 현황과 우리나라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경쟁력 지수 비교 및 품목별 FTA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2. 인도와 베트남의 교역 현황

(1) 인도의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 물품

인도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중국·UAE·러시아 등 상위 교역 10개국 기준 인도의 FTA 체결국[2)]은 UAE·인도네시아·한국·싱가포르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기준 인도의 국가별 수출입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 상위 10개국 중 미국·방글라데시·사우디아라비아·독일·홍콩은 감소를, UAE·네덜란드·중국·영국·싱가포르의 수출은 증가를, 수입은 상위 10개국 중 러시아, 한국,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들은 모두 감소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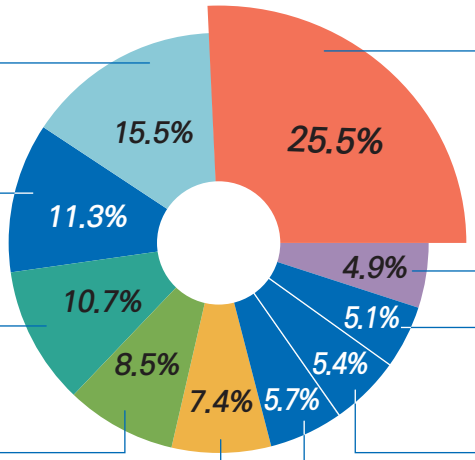
1) 현대경제연구원, 주요 신흥국 수출환경 점검과 시사점(2024,3) 참고,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6개국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수출비중의 변화를 검토함

2) 인도는 2024년 8월 기준, 총 28개국과 14건의 FTA를 발효 중에 있으며 FTA 체결국 규모는 세계 GDP의 15% 수준이고 주요교역상대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UAE이다.

인도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수입

인도 기준 FTA 체결국 표시 (단위 : 억 불)



1. 중국
2022년 1,022
2023년 1,013

2. 러시아
2022년 406
2023년 616

3. UAE
2022년 539
2023년 448

4. 미국
2022년 518
2023년 42

5.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 462
2023년 339

6. 이라크
2022년 391
2023년 295

7. 인도네시아
2022년 287
2023년 228

8. 한국
2022년 207
2023년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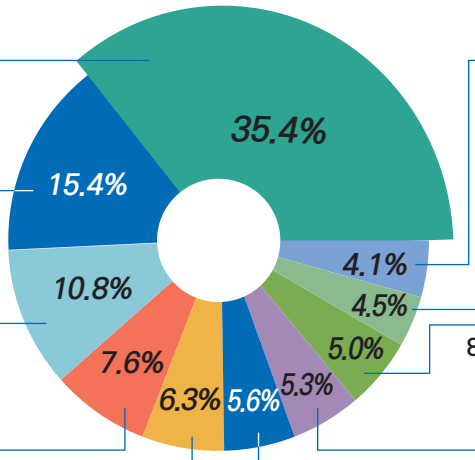
9. 싱가포르
2022년 163
2023년 196

10. 스위스
2022년 163
2023년 196

TOTAL
(단위 : 억 불)
2022년 **4,239**
2023년 **3,977**

수출

인도 기준 FTA 체결국 표시 (단위 : 억 불)



1. 미국
2022년 802
2023년 758

2. UAE
2022년 313
2023년 330

3. 네덜란드
2022년 185
2023년 231

4. 중국
2022년 151
2023년 163

5. 영국
2022년 112
2023년 134

6. 싱가포르
2022년 118
2023년 121

7. 방글라데시
2022년 138
2023년 113

8. 사우디아라비아
2022년 102
2023년 108

9. 독일
2022년 104
2023년 97

10. 홍콩
2022년 98
2023년 87

TOTAL
(단위 : 억 불)
2022년 **2,123**
2023년 **2,142**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인도의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의 총 교역액을 살펴보면, 인도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띠고 있으며, 특히 원유(HS 2709호), 금(HS 7108호), 석탄(HS 2701호)와 같은 에너지 및 천연원자재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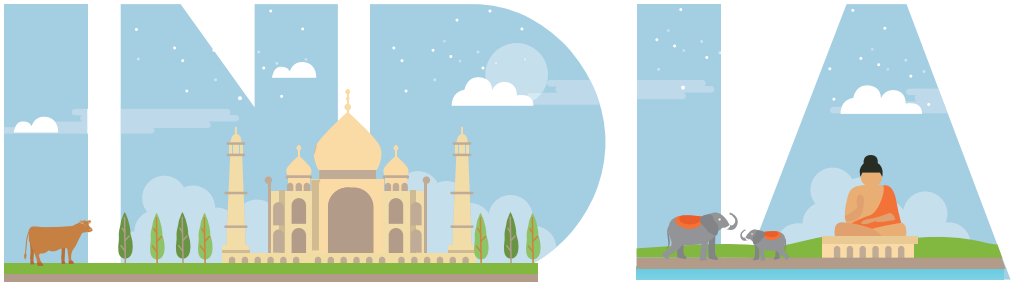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인도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억 불)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
1	2709	원유	1,401
2	7108	금	426
3	2701	석탄	371
4	2711	석유가스	249
5	7102	다이아몬드	220
6	8542	전자집적회로	192
7	8517	통신기기	165
8	2710	석유조제품	119
9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94
10	1511	팜유	88
Total			3,325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출
1	2710	석유조제품	853
2	3004	소매의약품	188
3	7102	다이아몬드	182
4	8517	통신기기	156
5	7113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	127
6	1006	쌀	105
7	8708	부분품 (8701-8705)	70
8	8703	승용자동차	67
9	7601	괴	48
10	0306	갑각류	44
Total			1,840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베트남의 주요 교역국과 수출입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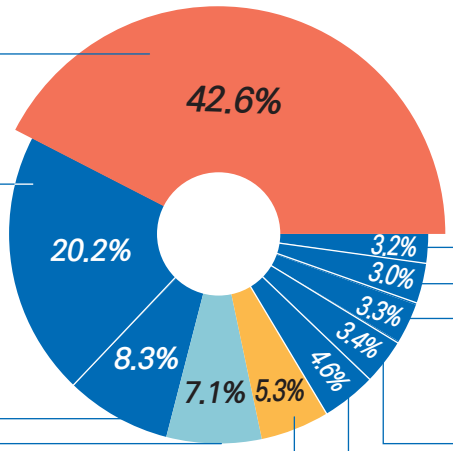
베트남의 주요 교역상대국은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며 수출입 상위 10개국 중 미국과 대만을 제외한 국가들이 베트남과의 FTA 체결국[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3년 기준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입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수출 상위 10개국 중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8개국의 수출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상위 10개국 모두 감소를 기록하였다.

3) 베트남은 2024년 8월 기준, 총 53개국과 8건의 FTA를 발효 중에 있으며 FTA 체결국 규모는 세계 GDP의 57% 수준이고 주요교역상대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다.

베트남 상위 10대 교역국 현황

수입

베트남 FTA 체결국 표시 (단위 : 억 불)



1. 중국
2022년 1,176
2023년 1,106

2. 한국
2022년 620
2023년 525

3. 일본
2022년 233
2023년 216

4. 대만
2022년 226
2023년 184

5. 미국
2022년 145
2023년 138

6. 태국
2022년 141
2023년 118

7. 인도네시아
2022년 96
2023년 87

8. 호주
2022년 101
2023년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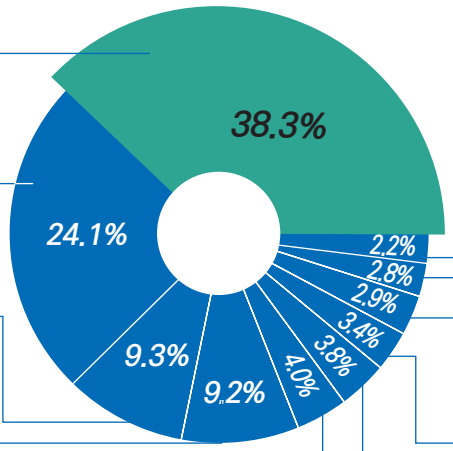
9. 말레이시아
2022년 91
2023년 7

10. 인도
2022년 71
2023년 158

TOTAL (단위 : 억 불)
2022년 **2,900**
2023년 **2,595**

수출

베트남 FTA 체결국 표시 (단위 : 억 불)



1. 미국
2022년 1,095
2023년 970

2. 중국
2022년 577
2023년 612

3. 한국
2022년 243
2023년 235

4. 일본
2022년 242
2023년 233

5. 네덜란드
2022년 104
2023년 102

6. 홍콩
2022년 109
2023년 96

7. 인도
2022년 80
2023년 85

8. 독일
2022년 90
2023년 74

9. 태국
2022년 73
2023년 71

10. 캐나다
2022년 63
2023년 56

TOTAL (단위 : 억 불)
2022년 **2,676**
2023년 **2,534**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해관총서(2023)

베트남의 상위 10개 수출입 품목의 총 교역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동일하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무역수지 적자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전자집적회로(HS 8542호)와 같은 반도체 핵심 부품 수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석유조제품(HS 2710호), 석탄(HS 2701호)와 같은 에너지 자원들이 뒤를 잇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2년 기준 베트남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억 불)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
1	8542	전자집적회로	543
2	2710	석유조제품	96
3	2709	원유	73
4	2701	석탄	66
5	7208	판(폭 60㎝이상, 열간압연)	58
6	8534	인쇄회로	58
7	8529	부분품 (HS 8524-8528)	54
8	8507	축전지	40
9	5201	카드·코움하지않은 면	38
10	8536	스위치, 커넥터 (1000V이하)	38
Total			1,064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출
1	8517	통신기기	853
2	8542	전자집적회로	188
3	8473	컴퓨터의 부분품 (HS 8470 ~ 8472)	182
4	6403	가죽제 갑피의 신발	156
5	6404	방직용섬유제 갑피의 신발	127
6	9403	기타의 가구	105
7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	70
8	8544	절연전선·케이블	67
9	8528	텔레비젼·모니터	48
10	8443	인쇄기·복사기	44
Total			847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인도와 베트남의 ①수출입 상위 10개국과의 교역 현황 ②수출입 상위물품 교역 현황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두 국가의 상위 10개 품목의 수출입 총 교역액 모두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더 큰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조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에 대한 수입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우리나라의 인도 및 베트남 수출 현황 및 시장경쟁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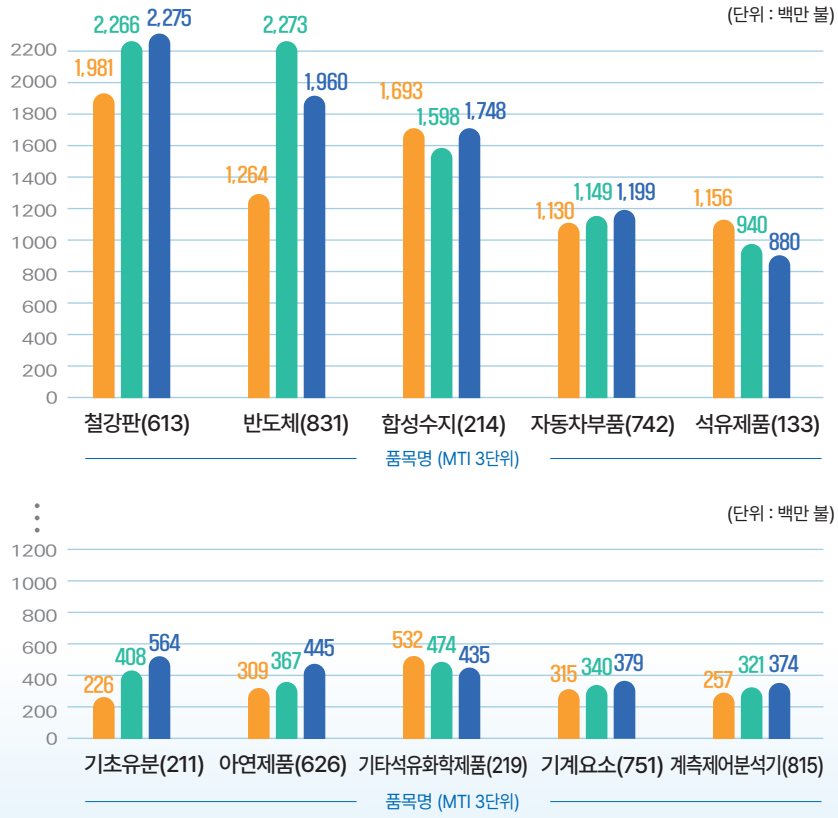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현황 분석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누적 수출상위 10대 품목의 수출 동향을 살펴보자.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반도체'와 '석유제품', 그리고 '기타석유화학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수출증가를 기록했다. 수출 1위 품목인 '철강판'은 전년 대비 0.4% 증가한 약 2,275백만 불(약 3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기초유분'이 38.4%로 가장 큰 증가폭을, '반도체'의 경우 –13.8%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내며,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최근 3개년 기준 가장 큰 증가 추이를 나타낸 '기초유분'은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로, 자국 제조업이 활성화되면서 화학산업의 원료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만들기 위한 경제개발 정책인 'Make in India' 방향성과 통일된 행보를 보인다.

반면, '석유제품' 및 '기타석유화학제품'의 경우 2021년부터 지속적인 수출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러시아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입 비용 절감 등으로 인도 시장의 점유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4)]

최근 3개년 우리나라 對인도 주요 수출 품목



TOTAL
(단위 : 백만 불)

8,606	2021년
10,136	2022년
10,259	2023년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4) ITC Trademap 상 2023년 기준, 인도는 석유제품의 총 수입 대비 러시아로부터 약 30% 가까이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인도의 HS 27류 총 수입액 220,572 천불 대비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액 58,728 천불로 확인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0.0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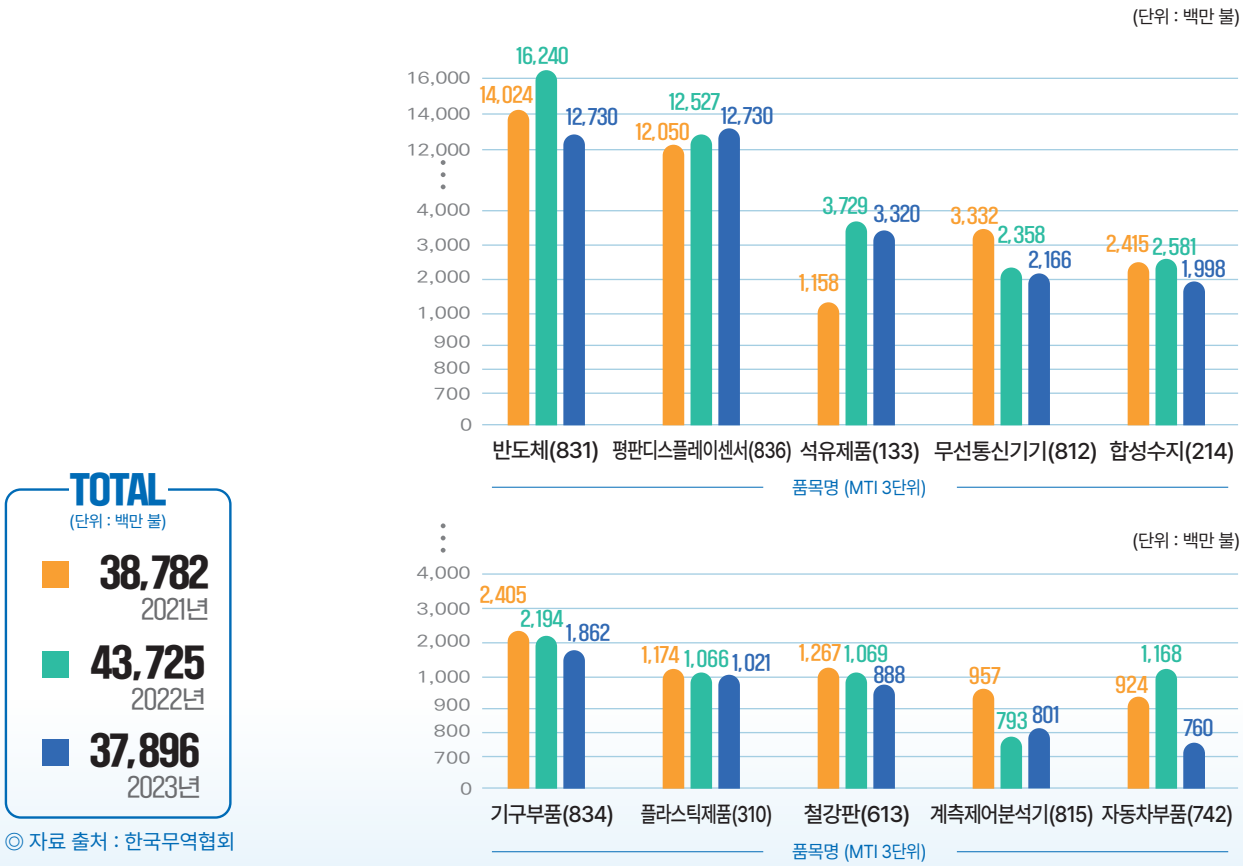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현황 분석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상위 10개 품목의 2023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계측제어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 전년대비 모두 감소를 기록하였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 대비 21.6% 감소한 약 12,730백만 불(약 17조 원)을 기록하였으며, '자동차부품'이 -35%로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내었다.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인 '자동차 부품'은 베트남 전기차 시장 전환 및 부품 변화로 인한 영향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 베트남은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차 시장에서의 급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수요는 줄어들고,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자동차부품 수출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5)]

2023년 주요 수출 품목 대부분 품목의 수출 감소 이유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제침체 영향이 베트남의 주요 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수요 감소로 이어졌고, 베트남 내 재고가 증가하면서 공장가동률 하락과 수입 감소까지 야기했기 때문이다.

최근 3개년 기준 우리나라 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



TOTAL
(단위 : 백만 불)

- 38,782 2021년
- 43,725 2022년
- 37,896 2023년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5) 베트남 정부는 2022년 '운송부문 탄소·메탄 배출저감 및 녹색에너지 전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40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제조 및 수입을 제한, 2050년 이전까지 최종 중단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경쟁력 분석

① RCA 지수 분석

이하에서는 특정 국가가 특정 상품에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활용하여 분석하도록 하겠다.

$$RCA_i^k = \left(\frac{X_i^k}{WX^k}\right) / \left(\frac{X_i}{WX}\right)$$

X_i^k = i국의 k상품 수출액
X_i = i국의 전체 수출액
WX^k = 전세계의 k상품 전체 수출액
WX = 전세계의 전체 수출액

하나의 예를 들어보며 이해를 돕겠다. 2023년 한국의 총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전 세계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RCA는 3이 되며 한국은 자동차 수출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더 나아가 같은 해 일본의 총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라고 가정한다면 일본의 자동차 수출에 대한 RCA는 2가 된다. 이는 일본 또한 자동차에 수출 경쟁력이 있지만, 한국(RCA 3)이 일본(RCA 2)보다 수출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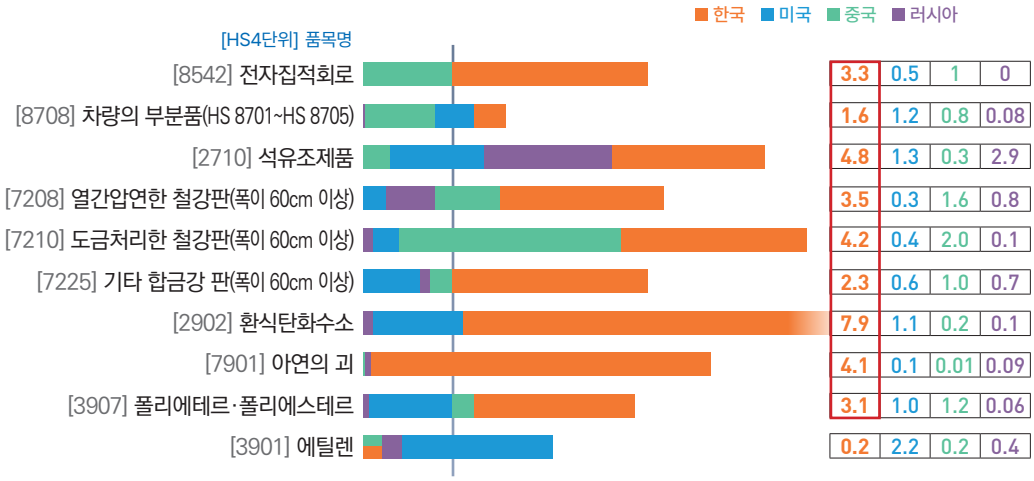
앞서 분석한 인도와 베트남의 주요 교역 3개국을 우리나라 수출 경쟁국으로 설정하고, 우리나라의 對인도, 對베트남 주요 수출 10개 물품을 기준으로 하여 수출경쟁력 지수(RCA)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 불가리아 소피아무역관 정지운의 '한국의 수출 경쟁력으로 찾아본 불가리아 수출유망품목'(2021) 예시 문구를 인용하였음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리나라 對인도 주요 10개 수출물품 중 에틸렌(HS 3901호)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RCA 지수가 1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은 RCA 지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당 품목들이 세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경쟁국 (미국·중국·러시아)에 비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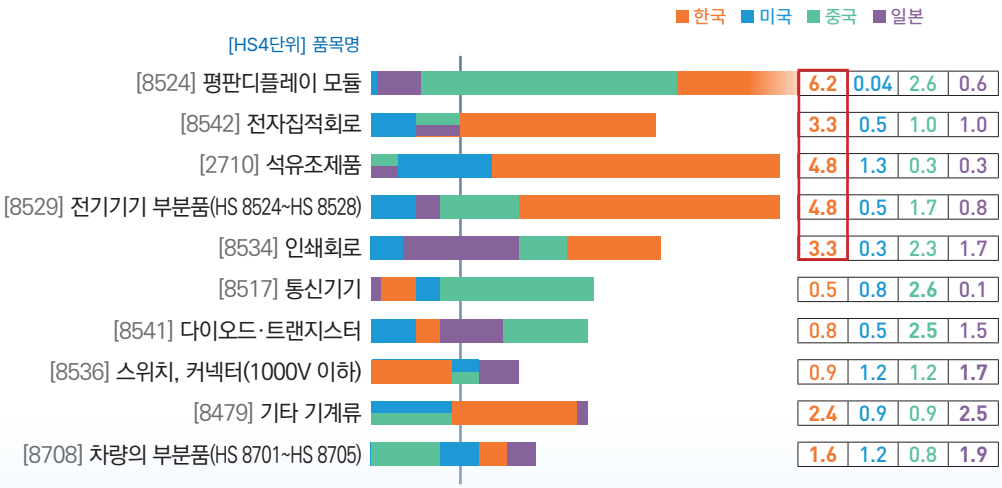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요수출물품 수출 경쟁력(RCA 지수)



◎ 자료 출처 : ITC Trademap의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 對베트남 주요 10개 수출물품의 경우는 어떠할까?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통신기기(HS 8517호), 다이오드·트랜지스터(HS 8541호), 스위치 커넥터(HS 8536호)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RCA 지수가 1보다 큰 값을 나타냄으로써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경쟁국(미국·중국·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상위 5개 품목이 보다 더 비교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도 주요수출물품 수출 경쟁력(RCA 지수)



◎ 자료 출처 : ITC Trademap의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정리하자면,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 수출 품목이 RCA 지수 1 이상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경우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통신기기, 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 등 일부 품목은 RCA 지수가 낮아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CAC 지수 분석[7]

다음으로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물품들이 주요 경쟁국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RCA 지수는 세계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면, 해당 분석은 RCA 지수를 응용하여 개발된 지수로 특정 시장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비교할 때 활용되는 방법이다.

$$CAC_{ij}^{k} = \frac{X_{ij}^{k} / X_{ij}}{X_{i}^{k} / X_{i}}$$

X_{ij}^{k} = 수입국 j에 대한 수출국 i의 k상품 수출액
X_{ij} = 수입국 j에 대한 수출국 i의 전체 상품 수출액
X_{i}^{k} = 수출국 i의 k 상품 수출액
X_{i} = 수출국 i의 전체 상품 수출액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이 인도 시장에 수출하는 축전지 비중이 20%이고 전세계 수출에서 축전지 수출 비중이 10%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축전지 수출에 대한 CAC는 2가 되며, 한국은 축전지 수출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인도 시장에 축전지를 주로 수출하는 경쟁국의 수출 비중과 비교했을 때 2보다 더 낮은 지수를 나타내는 국가보다는 한국이 인도 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특정 시장에서의 국가별 비교 우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인 '국별비교우위지수'(CAC, Comparative Advantage by Country)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인도 C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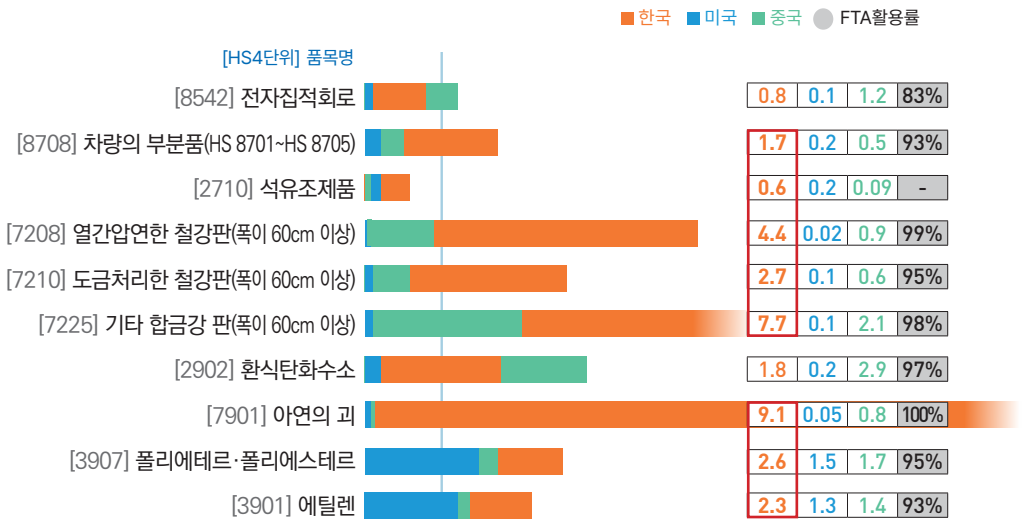
먼저, 우리나라가 인도 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상위 10개 물품은 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차량 부분품 등 다양한 산업에 속하는 품목군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가 인도에 수출하고 있는 상위 10개 물품 중 HS 8542호(전자집적회로), HS 2902호(환식탄화수소)를 제외한 모든 물품이 인도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미국·중국)보다 높은 수출 경쟁력과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나라가 인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지닌 물품은 아연의 괴(HS 7901호)로 확인되며, 석유 조제품(HS 2710호)이 상위 수출물품 중 가장 낮은 0.6으로 1보다 낮은 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석유 조제품의 경우 인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다른 물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CAC 지수가 1보다 클 경우 수출국의 해당 품목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수가 더 클수록 해당 시장에서 수출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도 시장 주요수출물품 수출 경쟁력(CAC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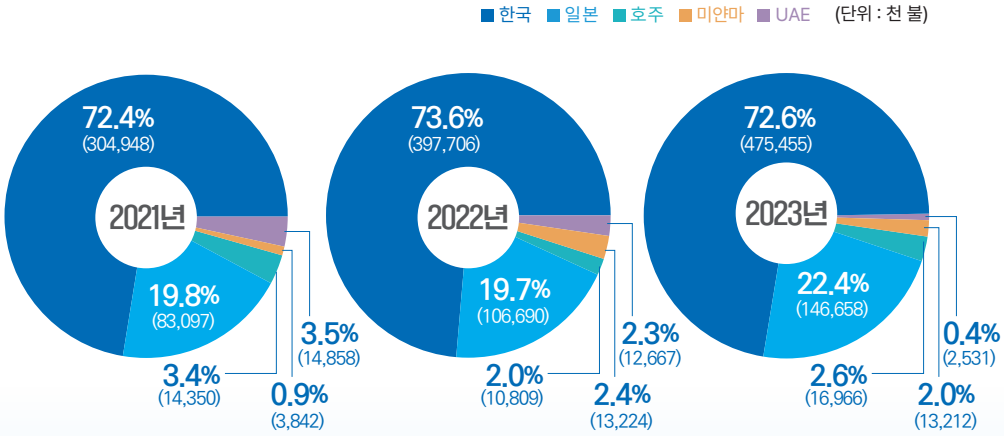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ITC Trademap의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 2023년 기준 러시아의 對인도 수출액은 통계 조회가 되지 않아 해당 분석에서는 제외하였음

주요 수출품목들의 지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CAC 지수 1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인도 시장 내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비교적 강한 경쟁력을 갖춘 편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가 간 CAC 지수 격차가 가장 큰 HS 7901호(아연의 괴)를 대상으로 인도의 국가별 수입 비중 분석을 통해 교차 검증해 본 결과, 인도의 HS 7901호(아연의 괴) 수입 상위 5개국은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2023년 기준 해당 5개국에 대한 수입액 비중은 한국이 72.6%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개년 기준 인도의 HS 7901호 수입 5개국



* 수입액 비중의 경우 인도의 수입 상위 5개국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자료 출처 : 한국무역협회

TOTAL
(단위 : 천 불)

2021년	421,095
2022년	541,096
2023년	846,830

그렇다면 앞서 분석한 상위 10개 수출물품의 FTA 활용 수준은 어떠할까? HS 4단위 기준 미양허 품목인 석유조제품(HS 2710호)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FTA 활용률은 높은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한-인도 CEPA를 적극 활용하여 관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나라가 인도 시장에 가장 많은 수출액을 자랑하고 있는 전자집적회로(HS 8542호) 하위에는 아래 표와 같이 4개의 품목이 분류되는데 3개의 품목은 이미 무관세 품목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고 HS 8542.39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품목은 FTA 활용률이 83%로 분석되었다.[8)]

일반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 시장에 해당 물품(HS 8542.39호)을 수출할 경우 기본세율 7.5%를 적용하여야 하나,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면 영세율(0%)을 적용할 수가 있다. 현 분석 결과인 83%의 FTA 활용률은 해당 국가에서의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인도 CEPA HS 8542호 이하 세번 세율구조 및 FTA 활용률

HS CODE	품목명	CEPA(1순위)	기본세율(2순위)	FTA 활용률
8542.31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0%	Free	-
8542.32	메모리	0%	Free	-
8542.32	증폭기	0%	Free	-
8542.39	기타	0%	7.5%	83%

이에 반해, FTA 활용률이 비교적 저조한 품목도 확인된다. HS 3901호로 분류되는 '에틸렌'의 경우 93%로 상당히 높은 FTA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해당 세번의 이하 세번(HS 6단위)들에 대한 FTA 활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HS 3901.90호로 분류되는 '기타' 품목의 경우 37%로 낮은 활용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인도 CEPA HS 3901호 이하 세번 세율구조 및 FTA 활용률

HS CODE	품목명	CEPA(1순위)	기본세율(2순위)	FTA 활용률
3901.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	미양허	Free	-
3901.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	미양허	Free	-
3901.3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0%	7.5%	94%
3901.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비중이 0.94 미만)	0%	7.5%	99%
3901.90	기타	5%	7.5%	37%

8) 한-인도 CEPA 상 HS 8542.39호를 제외한 HS 8542호 이하 이외 세번의 경우 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은 모두 0%로 동일하다.

인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HS 3901.90호 주요 수출국은 중국으로,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70%를 담당하고 있으며 활용률은 77%,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CTH) 단일기준이다.

HS 3901.90호 원산지결정기준 및 FTA 활용률 비교

순위	중국	인도
협정세율	3901.90-1000: MFN 6.5%/ FTA 2.1% 3901.90-9000: MFN 6.5%/ FTA 4.2%	3901.90-90: MFN 7.5%/ CEPA 5%
원산지결정기준	CTH	CTH+ RVC 25%
FTA 활용률	77%	37%

그러나 중국과 비교할 때 인도의 HS3901.90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소 엄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중 FTA 활용을 위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만 충족하면 되지만 한-인도 CEPA 활용을 위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과 함께 부가가치기준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협정세율 적용 시 관세차익도 인도보다 중국이 더 큰 점등을 고려해 보면 한-인도 CEPA 활용 시 관세차익은 적은 반면 원산지결정기준은 더 엄격한 점이 FTA 활용에 영향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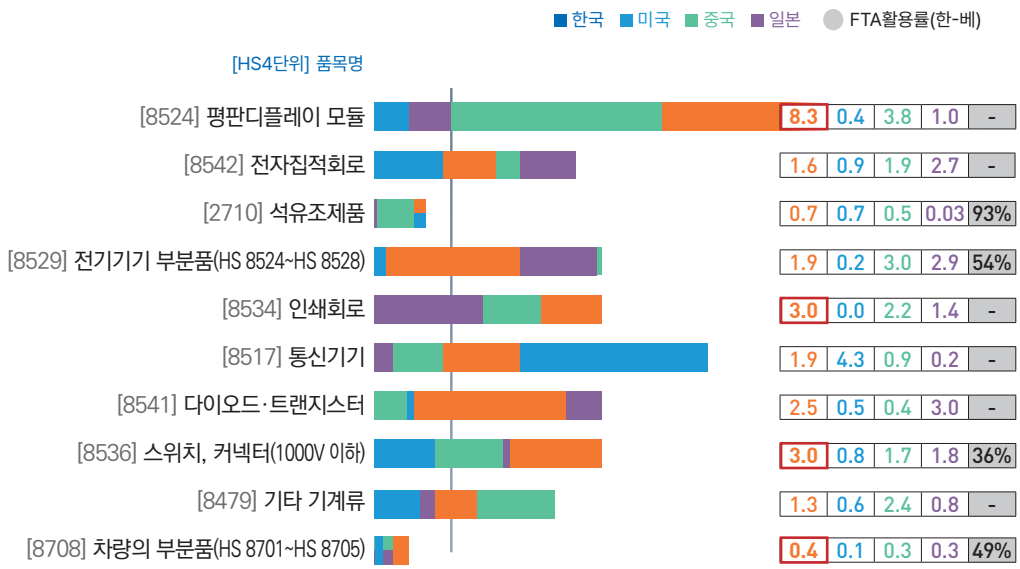
한-베트남 FTA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상위 10개 물품도 함께 CAC 지수를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분석해 보자. 베트남 시장에는 철강제품부터 화학제품까지 다양한 품목군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 시장과 달리 전자제품, 기계류에 속하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인도 시장과 달리 베트남 시장에서는 주요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과 비교 열위를 가진 품목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우리나라가 주요 경쟁국(미국·중국·일본)에 앞서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물품은 평판디스플레이 모듈(HS 8524호), 인쇄회로(HS 8534호), 스위치 커넥터(HS 8536호), 차량의 부분품(HS 8708호)로 확인되었다.

베트남 시장 상위 10개 수출물품의 FTA 활용 수준도 함께 분석한 결과 베트남의 경우 기존에 이미 무관세 품목이므로 FTA 활용 실익이 없는 품목군(평판디스플레이 모듈, 집적회로 등)과 고활용 품목(HS 2710호), 저활용 품목군(HS 8529호, HS 8536호, HS 80708호)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베트남 시장 주요수출물품 수출 경쟁력(CAC 지수)



◎ 자료 출처 : ITC Trademap의 자료를 가공하여 저자 작성

우리나라는 HS 2710호[9] 아래의 품목 중 '기타'항목인 HS 2710.19호가 전체 수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이 세번에 대해 협정세율과 MFN 세율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해당 물품(HS 2710.19호)을 수출 시 FTA를 미활용한다면 기본세율 5%~7%를 적용하여야 하나,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한다면 영세율(0%)을 적용할 수가 있다. 현 분석 결과인 93%의 FTA 활용률은 해당 물품은 한-베트남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세 인하 혜택을 잘 활용하고있다는 점으로 판단된다.

한-베트남 FTA HS 2710.19호 세율 및 FTA 활용률

HS CODE	품목명	VK(1순위)	AK(1순위)	MFN(2순위)	FTA활용률(VK)
2710.19	기타	0%	0%	5 ~ 7%	93%

* 한-베트남 FTA 기준 HS 2710.19.71호, 2710.19.72호에 분류되는 자동차용(기타포함) 디젤 연료는 미양허 품목에 해당하며, HS 2710.19.90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경우 협정세율과 MFN 세율이 0%로 동일하다.

하지만 인도에 비해 베트남은 주요 수출품목의 FTA 활용률이 대부분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베트남 FTA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은 베트남의 특수한 관세 제도 때문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10] 베트남은 임가공 기업 및 수출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용 원재료등을 수입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9) HS 2710호 이하 세번은 HS 2710.12(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HS 2710.19(기타), HS 2710.20(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HS 2710.91(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HS 2710.99(기타)로 분류되어있다.

10)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25호(2019),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의 FTA 적용에 대한 검토' 참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조건부로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면세 제도에는 임가공 면세, 수출가공기업(EPE: Expert Process Enterprise) 제도 등이 있는데, 두 제도 모두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원재료 및 소모품 등에 대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베트남 수출기업들은 FTA 활용 실익이 적어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난 2023년 5월 베트남 관세총국은 베트남의 내국 수출입제도의 일부 조항 폐지안을 제안 한 상태로 베트남 수출기업들은 해당 제도 개정동향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11] 베트남 정부는 그동안 적극적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과 투자기업들의 수입세 면세제도 활용이 정착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와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만약 해당 제안처럼 면세제도의 일부조항 들이 폐지 된다면 수출기업들은 기존의 면세제도를 통한 혜택에 대응할 방안으로 FTA 활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국내 정책상 활발하였던 관세면제가 일부 폐지된다면 FTA 협정세율의 적용은 핵심적인 수출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마무리 하며



인도와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거대한 소비시장일 뿐만 아니라, 자국 제조업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와 물품을 수입하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두 국가 모두 세계 시장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산업 인프라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국내기업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들의 수출 경쟁력을 국별비교우위지수(CAC) 및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국가의 주요 교역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비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갖춘 품목군을 파악하고, 이를 통한 시장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였다.[12]

두 국가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분석 결과는 경쟁력을 지닌 주요 수출 품목과 경쟁력이 미흡한 품목이 명확히 구분되어 나타났다. 이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다양한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은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 높은 RCA·CAC 지수를 기록하며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산업

11)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2023), '베트남 내국수출입제도 개정 추진동향 및 대책' 참고.

12) 이번 호에서는 인도와 베트남의 수출상위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경쟁력 우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에는 상대국의 수입 상위 물품 중심으로 우리 수출품의 경쟁력과 FTA 활용 현황을 검토해보고 전후 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내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신기술 도입과 품질 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비교적 낮은 수출 경쟁력을 나태는 품목의 경우 글로벌 표준과 같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별 정책 지원과 기업 실무자를 위한 FTA 교육 활동, 수출 리스크 대비 위한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무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FTA 활용 실익이 없는 품목은 수출국의 자국 수출입제도의 정책 변화에 따라 FTA 특혜 품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들은 두 국가의 정책추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FTA 특혜 적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FTA BRIEF

Vol. 08 | October 2024

한국원산지정보원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